***Report***



**시사문제 essay**

**제 출 일 : 2015. 06. 11**

**소 속 : 소프트웨어학과**

**과 목 : IT 세미나**

**이 름 : 정유석**

EMB000005ec6b9b

**Index**

1. Introduction
2. 여성가족부 과연 올바른 정부 기관인가?

2. 1 여성가족부 역사

2. 2 지금까지 한 일

2. 3 그들의 만행

1. Conclusion

References

1. Introduction

우리 사회는 현재 많이 평등해졌고, 그 이상으로 여성들의 직위가 많이 올랐다. 2014년 기준 여성 공무원 비율은 59.4%(1) 즉, 남성 공무원의 비율보다 약 20% 이상 높고, 군 장교가 된 여성이 사병인 남성들을 지휘하며, 대통령 또한 여성이 된 시대이다. 이렇게 평등한 사회에서 국가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는 아직까지도 남녀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남녀평등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며 오히려 역차별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레포트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업무 및 역사와 그들의 만행들을 찾아보겠다.

2. 여성가족부 과연 올바른 정부 기관인가?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정부가 여성의 사회참여와 인권평등을 목표로 세운 국가 행정기관이지만, 과연 그들이 올바른 정부 기관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들은 사회 다방면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2. 1 여성가족부 역사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역사를 보면, 1982년 3월20일(제5공화국 시절) 기존의 제2정무장관실이 폐지되고, 제3정무장관실이 ‘제2정무장관실’로 직제 개편되어,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업무 중에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획, 조정,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여성분야의 권익과 직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의 조정을 하였다. 하지만 그 권한이 실질적으로 미비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여성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

1998년 김대중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령에 의해 제2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로 신설되어, 대통령 직속 특별 위원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에 해결을 하고자 2001년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관련업무를 일괄 관리하여 중앙행정기관인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승격하여,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과 노동부의 여성의 집 사무 등을 넘겨받았다. 200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영ㆍ유아 보육업무를 이관받았다.(2)

2005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ㆍ확장되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에는 여성부로 다시 환원ㆍ축소하면서 가족·보육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했다. 그러나 2010년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아동 업무 중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가 이관되었다. 영육아 보육 업무는 이관되지 않고 그대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 이리하여 명칭이 다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다.(2)

2. 2 지금까지 한 일

여성가족부가 한 일중 대표적인 하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있다. 2011년 2월 28일에 설립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2013년 6월 19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주도하에 강화된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게 되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행 관련 법들이 개정 되었다. 또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저녁에 게임을 하는 것을 막고, 아청법을 통해 아동성폭력으로부터 예방을 주도했다. 또한, 여성전용 화장실,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독서실 등 여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3)

2. 3 만행

이들이 한 행동은 정말 만행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우선 예산 문제가 있다.

2015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6,424억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용처는 정부 집행의 목적이 아닌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 우선 이들은 매달 회의를 진행할 때 마다 총 450만원의 금액을 사용한다. 이것은 각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회의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사 전시관, 전시 운영, 간담회 등으로 총 1,500만원이라는 세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에 3,500만원 가량을 쓰고 있다.(3)

먼저,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성사 전시관은 전시 작품 수도 작으며, 제대로 운영조차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시 운영과 간담회의 목적으로 1,500만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전시관에 비해 평균적으로 2.3배정도 많은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설립했는데, 이곳에서의 교육 목적은 양성평등이라는 위장아래 ‘남성의 권력으로부터 상처받은 여성들을 기억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올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항상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로 보며, 이들이 낸 예산안에는 ‘여성’ 이라는 단어는 331번 언급되지만 ‘남성’은 1번, ‘청소년·가족·아동’은 32번 언급된다. 즉, 이들 조직의 원래 취지인 청소년·가족·아동들과 남녀평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 우대를 바탕으로 기획되고 있단 것이다.(4)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사용처들도 많다. 여성가족부 정문 화단 장식으로 수억 원을 지출했고,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총 80명 참석하는데 총 40억원을 측정하였다. 또한, 범죄자들인 성 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판단하여 세금으로 매달 60만원과 숙식 및 상담-의료-법률-재활-주거 지원하며, 모녀결손가정지원금(한부모 가족지원)으로 200억원을 사용했다. 또한 직업 없는 여성을 교육시킨다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설립하여 70억원을 사용하였고, 매년 회식하는데 5억원 이상 사용 및 직원 가족 경조사비에 14억원을 측정하고 있다.(3)

이러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예산 사용처 요구를 했으나, ‘여자라고 무시하느냐’, ‘좋은데 사용했다’라는 발언과 함께 사용처 개방을 거부했다. 또한, 여성교육 교육수료자 중 직업을 얻은 사람은 단 50%정도이다.(5)

이들은 세금낭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이들이 주장한 게임 셧다운제는 취지는 좋으나 국내 게임 산업을 모두 망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이 처음 이러한 주장을 할 때,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4천억원 강제 기부법을 제안했다. 또한, 셧다운제 통과 후 이로 인해 2년동안 국내 게임시장은 1조 1600억원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게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12년에는 26억3900만 달러까지 급증했으나, 2013년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7억1500만 달러, 2014년에는 1.5% 증가한 27억5500만 달러 수출하는데 그치면서 수출 성장세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6)

또한, 여성상위법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여성이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의 행동들을 모두 범죄라고 보며, 항상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가해자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를 통해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 노래 가사가 청소년이 음주하게 만든다고 금지시키자는 주장 등 여러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7)

그리고 이들의 이중성은 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온다. 이들은 군대는 고작 땅덩어리 지키는 일인데 군 가산점을 왜주냐며 군 가산점제 폐지를 주도, 군 복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자고 하며, 일병 기준 14만원인 사병들의 월급이 많다고 줄이고, 군대를 간다는 것은 영광으로 알고 당연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 출산율 1위 국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조를 예방하기 위해 출산 가산점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여성도 군 복무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 출산 의무제에 관한 의견에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8)

이것 이외에도 생리휴가·생리공결제·생리대면세·생리휴가 유급제, 군 가산점 폐지로 인한 청문회에서 여성의 지적 능력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라는 발언을 통해 여성의 우월성 강조 등 여러 면에서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한 주장, 사업, 정책 중에는 남자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9)

3. Conclusion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성이 많았다. 이것을 시사문제로써 판단하고 진행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들었다. 하지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것은 시사문제에서 꼭 빠지면 안될 것 같아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다. 또한, 내 자신이 여러 루머에 휩싸여 그들을 너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IT 세미나 레포트 중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조사하였고,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커뮤니티 사이트를 배제하여 여성가족부 관련 방송영상, 뉴스들만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물론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여 조리퐁 판매 금지, 테트리스 게임 금지 등은 루머로 밝혀졌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특히 예산 문제는 더욱 심각하였다.(10)

그들은 항상 예산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춰왔다.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예산처를 물어보면 그들은 일관되게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좋은 곳에 썼다’ 등 여러 이유로 회피를 해왔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불리하면 거짓말과, 침묵으로 대응해왔던 것이다.

또한, 2002년 TV 토론회를 시작, 2014년 군 가산점제 토론회를 모두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군인을 고작 ‘집 지키는 개’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며, 전쟁도 나지 않는대 미군은 필요 없다며 미군 철수를 요청하며, 사병들의 월급 또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매년 군대에서 죽은 병사 수만 해도 200~500명 사이이다. 또한 이것의 40%~50% 사이는 시설 낙후를 통한 사망이었다.(11) 제대로 시멘트가 되지 않는 초소에서 근무하다 죽은 병사들, 차량 낙후로 인한 사고 등 이것들이 여러 사망의 원인이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어 밤을 지새워가며 나라를 지키는 업무가 ‘집 지키는 개’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 북한과의 휴전 상황 속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하는지 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원래 취지는 여러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남녀평등을 위한 업무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업보를 보면 과연 그들 조직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하루 빨리 그들의 취지에 맞는 정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여겨야 하고, 국가차원에서 그들을 지도해야 한다.

References

(1) 위키트리 : [www.wikitree.co.kr/](http://www.wikitree.co.kr/)

(2)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97%AC%EC%84%B1%EA%B0%80%EC%A1%B1%EB%B6%80?from=%EC%97%AC%EC%84%B1%EB%B6%80>

(3)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index.jsp>

(4) 한국 NGO 신문 : <http://m.wngo.kr/a.html?uid=14014&section>=

(5) Change.org : <https://www.change.org/p/>

(6) 문화일보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50601031803006001>

(7) ebuzz : <http://www.ebuzz.co.kr/news/article.html?id=20130925800023>

(8) 시사InLive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4>

(9)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0811131178670>

(10) 한국 정부 민원 요청 : <http://www.maierhofen.com/question/114753.html>

(11) 머니투데이 뉴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51508090618107>